

문학의 향기

자유기고가 김춘경

조선 제22대 정조가 기록한 일기가 남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조수필일기(正祖手筆日記)》이다. 1797년(정조 21) 1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것으로, 공무에 관한 것은 과무(課務), 독서에 관한 것은 과독(課讀), 사례(射禮)에 관한 것은 과사(課射)라 하여 4과(四課)로 분류하여 적어 놓았다. 사례는 활을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에 행하는 의식을 말한다.

흔히 우리가 문학을 논할 때에 그 정의에는 크게 좁은 뜻과 넓은 뜻의 2가지가 있다. 협의의 문학이란 소위 상상적 문학(imaginative literature)이나 순문학(belles-lettres(프), schöne Literatur(독))을 가리키며 언어를 소재로 하여 사상이나 정서와 미적 감동을 표현한 순전히 상상력에 의한 작품을 이른다.

대개 여기에는 시가·희곡·소설·수필·비평 등의 장르가 포함된다. 과학이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인식인데 반하여 문학은 허구(虛構: fiction)와 비교에 의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픽션 즉 허구는 글자 그대로 사실이 없는 일을 사실처럼 엮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실제로는 없는 사건을 작자의 창의

성과 상상력에 의하여 창조해 내는 일 또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한다.

문학을 의미하는 영어의 literature란 단어도 라틴어의 littera에서 왔는데, letter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래서 문학은 광의로는 그 어원(語源)인 <써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협의의 문학에 포함되는 여러 장르 외에도 철학·역사·사상·윤리·정치 그리고 과학 중의 어떤 것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가령 역사가 문학으로 간주되려면 그 역사서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미적 정서와 경험을 느끼고 가능케 할만한 확고한 허구성(虛構性)과 독특한 문체(文體)를 지녀야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문학의 한 장르인 시(詩: poetry)는 자연이나 인생 등의 모든 사물에 대하여 스스로 우러나오는 감흥과 사상을 함축적이고도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을 말한다. 형태에 따라 정형시·자유시·산문시로 나뉘고, 내용에 따라서는 서정시·서사시·극시로 나뉜다. 이때 시문(詩文)을 세는 단위는 편 또는 수(首)이다.

시가(詩歌)는 글자 그대로 시와 노래(songs and poems)인데, 여기서는 시문학(poems)의 총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시문학은 시가에 관한 문학을 말한다. 사전에서는 시인(詩人)을 <시를 짓는 사람. 또는 시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 시가(詩家). 시객(詩客). 음객(吟客)>이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있다.

중국 송나라의 위경지(魏慶之)가 편찬한 시론서(詩論書)가 《시인옥설(詩人玉屑)》이다. 주로 송대(宋代)의 시화(詩話)와 수필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시론(詩論)·시법(詩法)·시평(詩評)을 모아 56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후에 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된 시인층(詩人層)의 욕구에 따른 시의 입문서가 되었다.

옥설(玉屑)은 한의학에서, 옥가루(jade powder) 즉 옥을 비수어 만든 가루로, 오장을 운택하게 하는데와 소아병의 한약제로 쓰인다. 또 '눈(雪)'의 미칭인데, 싹 잘 지은 글귀로 비유된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서 《시인의 사랑》은 슈만의 대표적인 연작 가곡집(歌曲集)이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H. Heine : 1797~1856)의 '노래의 책'에 곡을 붙인 것으로, 모두 16곡으로 되어 있다. 피아노 반주가 종래의 반주 개념을 무너뜨리고 독자적인 경지를 구축한 낭만파 가곡의 정점을 이룬 불후의 작품인데, 1840년에 발표하였다.

희곡(戲曲)은 대개는 상연을 목적으로 한 연극의 각본이다. 주로 회화(會話)와 연기로 표현되는 문학 작품을 말하는데, 흔히 드라마(drama)라고도 한다. 희곡을 쓰는 사람을 희곡작가(作家)라 한다.

1949년에 초연된 미국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밀러(A. Miller)가 쓴 희곡이 《세일즈맨의 죽음》(Death of a Salesman)이다. 성실하게 살아온 늙은 세일즈맨이 두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오랫동안 근무해 온 회사에서마저 해고당하여, 비관한 나머지 끝내 자살하고 만다는 줄거리이다. 현대의 부조리한 미국사회에 통렬한 비판을 가한 기념비적 작품이다.

또 《욕망(欲望)이라는 이름의 전차(電車)》(A Streetcar Named Desire)는 미국의 극작가 윌리엄스(T. Williams)가 지은 3막짜리 희곡으로 1947년에 초연되었는데 풀리처상을 받았다. 미국 남부의 몰락한 대농원 지주(大農園地主)의 딸 블랜치(Blanche)를 통해 여자의 성(性)의 좌절과 분열의 과정을 그린 광고(曠古)의 작품이다.

가장 넓은 문학형태의 하나인 소설(小說)은 작가의 상상력과 구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성이나 사회의 모습 등을 등장인물의 심리와 성격, 줄거리의 전개와 발전을 통하여 표현한 신문체의 문학을 말한다. 고대의 전설과 서사시, 중세의 설화 등의 계보를 이어 받아 근대에 와서 비약적으로 발달된 것이다. 이를 세는 단위는 편(篇)이라고 한다.

《소설어록해(小說語錄解)》는 중국 소설 '수호지(水滸誌)', '서유기(西遊記)', '서상기(西廂記)' 등의 어록을 수집하여, 이에 우리말 주석을 달아 놓은 책이다.

소설은 원래 글자그대로 작은 이야기, 하찮은 의론(議論)이다. 중국에서는 제자십가(諸子十家)의 하나인 소설가가 전하는 이야기를 지칭하였다.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허구에 의해 줄거리를 사실처럼 구성하고 세대와 인정을 묘사하거나 사실(事實)을 부

연(敷衍)한 산문체(散文體)의 문장을 말한다.

허구는 글자 그대로 <근거도 없는 일을 엮어 뭉침>(fabrication)이다. 여기서 픽션(fiction)은 허구(虛構) 또는 날조(捏造)를 의미한다. 문학에서는, 사실에 의하지 않고 상상(想像)에 의해 씌여진 이야기나 소설인데, 문학적 작품 가운데 소설 아닌 실기(實記)나 기록문학을 말하는 논픽션(non-fiction)과 대칭이 된다.

《테스(Tess)》의 원제는 더버빌가(家)의 순결한 처녀,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이다. 1891년에 발표되었는데, 영국의 작가 하디(T. Hardy)가 지은 시골처녀 테스의 비극적 사랑을 통해 남자의 도덕적 편견과 사회 인습에 희생된 불행한 여인의 일생에 관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

수필(隨筆)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과 자연에 대하여 보고 느낀 것을 생각나는 대로, 또 붓가는 대로 써나가는 산문형식의 짧은 글이다. 보통, 경수필(輕隨筆)과 중수필(重隨筆)로 나뉘이는데, 만문(漫文), 산록(散錄), 상화(想華), 에세이(essay)라고도 칭한다.

경수필은 일정한 주제보다는 잡다한 상념이 중심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볍게 다루며, 논리적인 판단보다 주관적이고 감성적 표현이 우세한 그러한 수필을 말한다. 연수필(軟隨筆) 또는 인포멀 에세이(informal essay)라고도 부른다.

이에 비하여, 중수필은 주로 사회적이거나 공적(公的)인 무거운 문제를 논리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비개성적(非個性的)인 수필이다. 이를 포멀 에세이(formal essay) 또는 경수필(硬隨筆)이라고도 한다.

조선 정조 때 박지원(朴趾源)이 지은 단편소설로 《호질(虎叱)》이 있다. 양반 계급의 위선을 호랑이가 인간을 질타하듯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야유한 작품인데, 《열하일기(熱河日記)》에 실려 전하고 있다. 내용이나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독특하고 뛰어난 작품이다.

이 《호질》이 우리나라 최초의 수필이라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예전에는 수필을 주필(走筆)이라고 하였다 한다. 글씨를 흘려서 빨리 쓰는 것을 이른다. 수필(手筆)도 자필(自筆), 자서(自書)와 같이 자기가 직접 글씨를 쓰는 것이다. 대필(代筆)과 대서(代書)의 대칭이 된다.

또한 객관적 현실을 다루지 않고 자기신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적은 수필체의 글은 신변잡기(身邊雜記)라 한다. 일종의 생활 수기(手記)인 것이다. 개인적인 일이 주가 되므로 경수필과 일맥 상통한다. 자기의 체험을 손수 적은 글이 수기(手記)인데, 수록(手錄)과 같은 뜻이다. 자기 신상의 체험이나 경험을 손수 기록하는 것이다.

비평(批評)은 원래 남의 결점을 드러내어 퍼뜨리는 것이다. 문학에서는 사물의 미추(美醜)·선악·장단(長短)·시비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물의 시비나 선악(善惡) 등을 판정하는 안목(眼目)을 비평안(批評眼)이라 하여, 비평하는 능력을 말한다.

비평과 관련하여 비평철학(哲學)이 있는데 비판(批判)철학(Kritische Philosophie)이라고도 하며, 칸트와 칸트학파에서 인간의 인식과 경험의 비판, 즉 그것들이 가능해지는 근거나 제약 등의 검토를 과제로 하는 철학을 말한다. 이에 신(神)과는 다른 유

한한 인간에게 허용되는 이성의 정당한 권한을 명백히 하였다. 비판주의, 선험주의(先驗主義), 초절론(超絶論), 초절철학이라고 하는데, 주관적 편견으로써 된 독단론(獨斷論 : dogmatism)과 대립된다.

비판(批判)이란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검토하여 평가하고 관정하는 일이다. 철학에서는 인간의 지식과 사상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그 의미나 내용이 성립되는 기초를 파악함으로써 그 기원이나 타당성과 한계 등을 명백히 궁구(窮究)하는 일이다.

러시아의 고리키(Gorkii)가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대비하여 만든 용어가 소위 비판적 리얼리즘(批判的 realism)이다. 19세기의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적으로 묘사하려는 태도를 가리킨다. 현실 비판이 있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와 다르며, 모순에 대한 해결을 보류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과는 다르다.

순수의식(純粹意識)은 경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선험적(先驗的) 의식이다. 즉 경험으로부터 독립되어 그 지배를 받지 않는 선천적인 의식이고, 순수의지(意志 : reine Wille)란 칸트철학에서 욕망과 감정 등과 같은 감성적인 것에 의하지 않고 오직 이성에만 따르는 자유로운 의지를 말한다.

순수이성(理性 : reine Vernunft)은 칸트철학에서, 경험에 앞서 감각표상(感覺表象)과는 관계없이 사물을 선천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은 독일의 철학자 칸트(I. Kant)의 저서이다. 인간의 인식능력 범위와 한계를 고찰하고 새로운 철학에 대한 길을 열었다. 근대에 있어서의 비판주의 인식론을 확립한 고전적 철학서인데 1781년에 간행되었다.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설명한 이성이 필연적으로 빠지는 자기 모순이 순수이성의 이율배반(二律背反 : Antinomie)이다. 이성이 초월적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인식하려고 하면, 서로 모순되는 4개 명제(命題)의 정립(定立)과 반정립(反定立)의 각각을 완전히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됨을 말한다.

평론(評論 : criticism)은 사물의 질이나 가치와 선악(善惡), 우열(優劣)과 작품의 영향 등을 비평하여 논하는 것이다.

중국 양나라의 유협(劉勰)이 쓴 유명한 문학 평론서가 《문심조룡(文心雕龍)》이다. 전반(全半) 25편에서는 문학의 근본원리를 논술하고 각 문체(文體)에 관한 문체론을 폈으며, 후반(後半) 25편에는 문장작법과 창작론에 관하여 세밀히 논술하였다.

실로 문학이란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의와 상상력에 의하여 언어로 표현하여 독자에게 공감과 공명을 불러넣어 주는 예술작품을 말한다. 이를테면 시·소설·희곡·수필·평론 따위이다. 그래서 문학작품으로서의 예술성이 곧 문학성(文學性)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문학작품과 그것이 반영하는 사회와의 관계에 주목하는 비평이론이 문학사회학(文學社會學 : sociology of literature)이다. 문학작품은 주제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나 작가가 속한 시대상 및 사회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은 프랑스의 19세기 철학자이며 비평가인 텐(H. A. Taine : 1828 ~ 1893)의 이론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20세기 들어와서는 루가치(G. Lukács)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적 비평가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양쪽에서는 1917년부터 확산되기 시작된 중국의 문학혁신운동이 세계문학사상에 큰 획을 그은 <문학혁명(文學革命)>이다. 종래의 문어문(文語文)을 버리고 살아 생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백화(白話)에 의한 문학을 창조하고자 후 스(胡適)가 처음으로 제창하였다. 뒤이어 천 두슈(陳獨秀) 등이 추진하고 루쉰(魯迅)이 그의 불멸의 소설 《광인일기(狂人日記)》에서 몸소 실천했다. 이 언어개혁은 문화와 사회의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고 꾸준히 전개되어 드디어는 <신문화 운동>으로 발전했다.

백화운동(白話運動)은 1917년 1월 중국의 후 스 등이 일으킨 문체의 일대 개혁운동이었다. 종래에 정통시되어 오던 문어(文語)를 대신하여 평이한 백화에 의한 쉬운 문장표현을 주장함으로써 문학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백화는 중국의 구어체(口語體) 언어를 말하는데, 현재의 중국어이다. 그래서 회화식(會話式) 백화로 쓴 중국의 글을 백화문(白話文 : composition in colloquial Chinese)이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광인(狂人)은 미친 사람, 미친광이, 광자(狂者)를 말한다.

러시아의 고골리(N. V. Gogoli)가 지은 일기체 소설로 1835년에 발표된 작품이 유명한 《광인일기(狂人日記)》(Zapiski sumasshedshago)이다. 현실의 좌절과 굴욕감을 극복하려고 공상의 세계로 들어가, 관료사회를 통렬하게 풍자함과 아울러, 하급 관리의 비참한 모습을 날카롭게 들추어낸 작품이다.

여기서 광인은 완전히는 미치지 않는 미친광이 같은 사람, 정신에 이상(異常)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다. 광인원(狂人院)은 미친 사람을 수용하는 병원, 전광원(癲狂院)이다. 간단히 말해서 전광 돌린 사람을 수용하는 정신병원이다. 속칭 미친병(insanity)이라고 하는 전광은 한의학에서 정신이상(精神異常)으로 실없이 잘 웃는 미친 병으로, 광증(狂症)이며 전간(癲癇 : epilepsy)과 광기(狂氣 : madness)이다.

중국 루쉰이 쓴 단편소설 《광인일기》는 중국 신(新)문학을 대표하는 최초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1918년에 발표되었다. 광인의 심리를 빌어 봉건적인 여러 악(惡)을 생(生)의 본능의 공포감에까지 추궁하면서 적나라하게 폭로하였다. 자유의 갈구(渴求)를 절규한 감명깊은 내용으로 형식면에 있어서도 고리타분한 과거와의 단절을 분명히 한 획기적인 소설이다.

1917~21년에 걸쳐,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제도와 문화에 정면으로 반대하여 후 스·루쉰·천 두슈 등을 주축으로하여 중국의 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이 신문화운동인데, 백화운동 등을 중심으로한 민주주의와 과학정신을 표방한 신문화(新文化)의 수립과 근대화를 표방하고 추진하였다. 이를 오사문화혁명(五四文化革命)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사에서는 물론 세계사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